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기독교윤리학개론

1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동성애

2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동성애 옹호의 성서적 근거

- 소돔은 동성애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
 - 동성애의 죄가 아니라 불친절의 죄였다
 - 손님들의 생명을 보호 (Hospitality)
 - 아다(yadha)는 '친숙해지다'는 뜻일 뿐이다(창 19:5)
 - “..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살관하리라...”
 -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(cf. 시 139:1)

3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소돔의 죄는 이기심이었다
 - “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종족함과 태평함이 있을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” (겔 16:49)
- 레위기 율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.
 - 레 18:22
 - 제사법이 철폐된 것처럼 (cf. 행 10:15)

4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율법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
- 불임은 유대인 여성에 대한 저주였다
 - 창 16:1; 삼상 1:3-8.
 - 즉, 구약의 율법이 자손을 전혀 얻을 수 없는 동성애를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
 - 율법이 동성애 일반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
- 바울의 비난은 개인적인 견해
 - “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” (고전 7:25)
 - “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” (12)

5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바울은 긴 머리털도 비난하였다
 -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 상당부분은 분명히 문화적으로 볼 때 상대적이다
 - “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” (고전 11:14)
 - 동성애는 문화적인 것이다
- 고전 6:9는 제반 범죄들에 반대하는 말에 지나지 않
 - 동성애 만이 아닌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
 - 바울은 비 범죄적 동성애는 알았는지 인정 (?)

6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이성간의 사랑은 동성연애자들에게는 비정상적
 - 역리 (롬 1:26)
 - 동성애가 잘못된 행위라는 주장은 아니다
 - 비정상이라고만 말했을 따름이다
 - 사회학적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
 - 동성애 비난 보다는 용인하는 구절이다 (?)
- 하늘나라에도 동성연애자가 있을 것이라 예언(이사야)
 - 고자들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(사 56:4)
 - “고자도 나느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…
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…”

7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였다
 - 삼상 18-12장
 - ‘사랑했고’ (18:3)
 - ‘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옷을 벗었으며’ (18:4)
 - ‘서로 키스했으며’ (20:4)
 - ‘서로 얼싸안고 지나치게 울었다’ (20:4)
- 다윗은 여성들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별로

8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동성애를 옹호하는 여타 근거들

- 성관계에 동의하는 성인들 사이에서는 성적 강제가 존재할 수 없다
 - 성인들에 대한 성적 금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
 - 자유로운 성적 표현 금지는 자유에 대한 침해
 - 강압적인 침해만이 잘못
 -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관계 맺을 권리

9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사생활권은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다
 - 미 연방최고법원 → 여성의 사생활권 명문화
 - 동성애 확대 적용 가능하다
 - 사생활권은 헌법상의 권리다
 - 성적 선호 다른 이유만으로 헌법 권리 박탈 불가
 - 차별, 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됨
- 성적 지향은 유전이다
 - 눈동자 색깔을 못 바꾸듯이, 성적 지향은 유전
 - 학습을 통해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
 - 우리 본연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듯이

10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도덕은 고대 이래로 변화를 겪어 왔다
 - 동성애의 관습이 비난 받았다고 해서
 - 현대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희박
 - 청교도적 문화에서는 비난 받았지만
 - 최근 문명화된 문화에서는 금기 해제
 - 많은 포유동물도 동성애 하고 있다
 - 자연과학자들은 동성애 인정한다
 - 인류에게서만 나타나는 행위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

11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동성애 옹호 심서 근거 반박

- 소돔이 범했던 죄는 동성애의 죄였다
 - ‘알다’(yadha)는 반드시 성관계 은유는 아니지만, 해당 구절 전후 맥락이 반증한다
 - 약 120회 사용된 창세기 율레가 거의 ‘성관계’
 - 롯이 자기 두 딸은 남자를 ‘안’ 적이 없다는 율레 역시
 - ‘성적으로 아는 것’ 의미 (19:8)
 - ‘알다’는 ‘사악한 일’과 동등 선상에 놓여 (7절)
 - 소돔인의 관심이 성적인 게 아니라면 왜 소돔인을 달래기 위해 처녀인 두 딸을 제공해야만 하는가?

12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소돔이 범했던 죄는 불친절의 죄만이 아니다
 - 창세기 19장 맥락 -----> 소돔의 성적 타락
 - 에스겔 16:49 언급된 이기심은 동성애를 배제하지 않는다
 - cf. '가증하다' (겔 16:50)
 - 동성애 죄와 동의어 (레 18:22)
 - 남색 = sodomy
 - cf. 신약 유다서 7절
- 동성애 금지의 의식적일 뿐 아니라 도덕적
 - 철폐된 의식법과 묶어서는 안된다

13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동성애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에게 심판을 내렸다 (18:1-3:25)
- 처벌의 차이가 위중성을 말한다 (레 18:29)
 - 동성애의 죄를 범하면 사형에 처해지는 처벌
- 구약에 정해진 식사 의례는 변경되었지만 (마 7:18; 행 10:12)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도덕 명령은 신약에서도 반복 (롬 1:26-27; 고전 6:9; 딤후 1:10; 유 7)
- 불임은 동성애가 나쁘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
 - 독신자가 죄인인가?(cf. 마 19:11-12; 고전 7:8)

14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동성애는 우상숭배와는 다른 차원의 악이다
 - 우상숭배에 끼워서 회피
 - 우상숭배와 동성애 징벌을 별도 취급
 - 레 18:22; 롬 1:26-27
 - 동성애와 우상숭배는 공존하는 죄악이지, 동등한 의미의 죄악이 아니다
 - 우상숭배는 타락의 근원이나(롬 1:22-27) 양자는 서로 다른 죄악이다
- 바울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다
 - 바울의 권위를 확보할 것

15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그 어떤 기독교인도 그의 권위에 도전 불가
- “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...” (갈 1:12)
- “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...” (고후 14:29)
 - 로마서 1장은 가장 분명하게 동성애 비난
- 동성애는 범죄다
 - ‘동성애를 하는 범죄자들’ (고전 6:9)
 - 동성애 = 범죄자

16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동성애는 머리털 길이와 동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
 - 동성애 죄를 머리털 모양 같은 순수 문화적 문제로 바라보는 성서구절이 없다
 - cf. 바울은 머리털이 긴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
- 동성애는 본성과 모순된다
 - 여기서 본성이란 사회학적 본성이 아닌 본질적 본성(롬 1:26)
 - 남자와 여자 창조 (생물학적)
 - ‘한 몸’ 이라는 말은 육체적 결합

17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동성애를 ‘부끄러운 욕심’ 으로 규정
- 이사야의 예언은 고자에 관한 것이다
 - 고자: 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동성연애자가 아니다 cf. 정신적인 고자
-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연애자가 아니다
 - 밧세바
 - 갑옷과 예복만 벗었을 뿐 (삼상 18:4)
 - 당대 남성들의 입맞춤의 인사법
 - “다윗이 골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올되” (삼상 20:41)

18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동성애 옹호 그 밖의 논증 반박

- 성인들의 결정이라고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
 - 나쁜 일을 서로 합의해도 정당한가? Cf. 은행 강도
 - 자유/합의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
 - 잘못된 가정에 입각 - 우리는 피조물
- 사생활권은 부도덕한 행위의 권리가 아니다
 - 미국 법원, 어느 누구에게도 비밀리에 동성애 할 권리는 없다고 판결 내린 바. (?)
 - 부도덕 행위는 장소만 바꾼다고 도덕행위 되는 것 아님

19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동성애 할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
 - 시민으로서의 권리 ≠ 동성애자로서의 권리
 - 잘못된 일을 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
- 동성애 성향은 유전이 아니다
 - 과학적 증거 없다
 - 동성애는 학습이라는 증거만 있다
 - 동성애는 배우는 것이다
 - 설령 그렇더라도, 유전적 폭음이
알코올 중독의 정당화 될 수 X
 - 도리어 자신의 본성을 버릴 때, 동성애에 빠짐

20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도덕은 변하지 않는다
 - 도덕 원리는 불변
 - 변화는 기본 도덕원리에 대한 우리 인식과 실천방법
 - 도덕률의 변화는,
→ 불변의 도덕 가치와 도덕 관습의 혼동에서 비롯
 - 사랑에 대한 이해는 과거 50년 간 변해왔지만,
사랑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!
 - 하나님은 자신의 기본 도덕적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 (말 3:6; 히 6:18)

21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동물의 행동은 인간 행동의 규범이 아니다
 - 동물의 행동의 동성애의 근거??
 - 포유류 동물의 동성애는 일시적
 - 인간 동성애자는 폭력적인 성을 즐긴다

22